

# 정치, '哲人'의 지혜 필요... 붓다 교설과 흡사

## 불교로 읽는 古典

### 플라톤의 <국가>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수년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정치철학 저서가 우리 서점을 강타했다. 20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세계적인 정치철학 붐 때문 일 것이다. 정의(justice)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다룬 중심 주제다.

1950년부터 스트라우스(Leo Strauss)는 철학이 선형적으로 정치적이고 지적 하면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온 현대정치학을 비판하고 고전 정치철학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롤즈(John Rawls)는 1971년 현대적 방법론으로 <국가>의 주제였던 정의를 분석하였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지식의 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참지식과 지혜를 알려주는 철학이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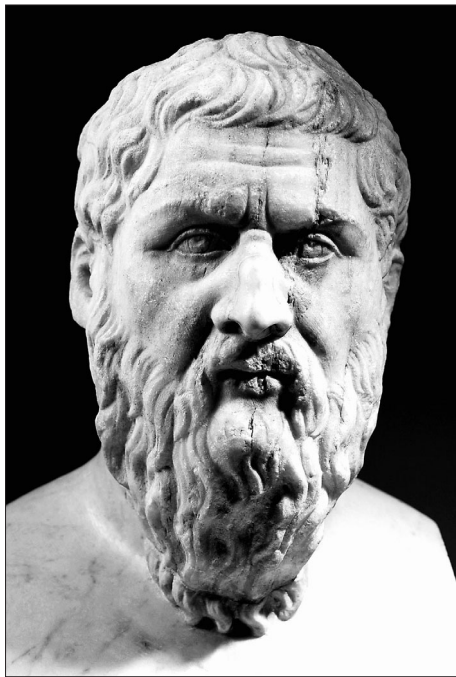
<국가>는 그리스 원어로 폴리티아이오그 영어로는 공화국(the Republic)인데 플라톤의 30여 대화편 중 중년에 쓴 작품이다. 소크라테스와 다른 인물들과의 대화 형식이지만 초기 대화편들과 달리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작품으로 보고 있다.

하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는 2천년의 서양철학을 플라톤 철학의 각주(footnote)라고 말했다. 그 정도로 플라톤이 서양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막중하다. 그런 플라톤의 대표적 저작이 <국가>이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학과 철학의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플라톤의 비판자들조차 그가 만들어 놓은 서양철학의 거대한 프레임(frame, 틀)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프레임 없는 프레임이 만들어 중생의 귀의처가 된 붓다의 가르침과 비교해보자.

#### 국가와 개인의 정의(正義)

<국가>는 이상적 국가와 현실의 정체를 다루면서 정의를 개인의 영혼에서는 물론 국가와 같은 조직에서도 최고의 덕이라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통속적인 정의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국가의 정의를 논한다. 국가는 개인을 확대한 것과 같아 큰 것에서 논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는 개개인이 자족적일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며 협동을 통해 완성된다. 모든 국가에는



플라톤의 흉상(사진 왼쪽)과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사진 오른쪽) 그림 가운데에서 이데아를 설명하며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다.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다.

장인(匠人), 농부, 무역업자 등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자 계급, 국가를 방어하는 수호자 계급(guardian),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통치자 계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각각의 계급은 그에 합당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거기에 맞는 특별한 덕(virtue)이 요구된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상층 계급인 통치자 계급은 전체로서의 국가를 어떻게 규율할지 아는 지혜(wisdom)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 계급인 수호자 계급은 국가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용기(courage)의 덕이 있어야 한다. 하층 계급인 생산자 계급은 자신들의 욕망(desire)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제(temperance)의 덕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국가의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란 사회 안에서 자신의 계급에 따라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즉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머리의 이성, 가슴의 기개, 그리고 배의 욕망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것처럼 정의로운 이상국가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급이 통치하여 계급들 간의 적절한 분업과 덕의 분업, 즉 지혜, 용기, 절제 간의 분업과 조화가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

플라톤은 철학자들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보았다. 통치자 계급과 수호자 계급에게 어릴 때부터 독서, 작문, 암송 등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교과목은 음악(music)과 체육(gymnastics)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음악은 오늘날 문화(culture)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체육은 육체적 훈련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은 침착(gravity),



예의바름(decorum) 그리고 용기(courage)를 배양한다.

플라톤은 시(詩)와 음악에 대해 검열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가 진리가 아닌 의견(doxa, 의견)만을 제시하는 일을 방지하고 음악이 용기와 조화로운 생활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학은 논리적 생각과 계산능력, 및 개념적 지식을 위해, 군사훈련은 국가수호를 위해 필수 과목이다.

다음으로 통치자의 가능성이 있는 소수에게는 직접적으로 진리의 학문인 변증법을 배우게 하고 최고 단계로서 전체를 통합

하는데 그들 뒤에 불꽃이 앞 벽에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묶인 사람들은 그림자를 세계의 참 모습인 줄 안다.

그런데 동굴 속의 어떤 죄수가 쇠사슬을 풀고 뒤돌아서 불꽃과 그림자를 비추게 한 사물을 직접 보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복제물일 뿐이며 아직 실제(reality)는 아니다. 쇠사슬에서 풀린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와 태양이 비치는 세계를 볼 때 복제물 대신 진정한 사물을 보게 된다. 그는 태양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 근원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거기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동굴 속의 사람들은 최종적 실제의 복제물임을 이

되어 있다. 거짓된 현상계, 의견의 세계에 붙잡혀 있는 젊은이들을 동굴에서부터 끌고 나와 진리를 보게 하는 역할이 바로 앞에서 소개한 플라톤의 교육 이론이다.

#### 개인의 영혼과 국가의 정제(政體)

정의로운 국가에서 지혜, 용기, 절제가 분업과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이 정의로운 인간의 영혼에서도 세 부분이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 여기서 플라톤은 통치자의 영혼이 타락할 때 국가의 정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정제인 군주정(君主政 monarchy)과 귀족정(貴族政 aristocracy)에서는 통치자의 영혼도 이성이 기개와 욕망을 지배하는 이상적인 것이다.

통치계급에서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명예정(名譽政 timocracy)이 된다. 새 통치계급의 덕은 이제 지혜가 아니라 용기가 되며 국민을 노예화하는 병영국가가 된다.

명예정에서 부를 갖게 된 통치 계급의 자손들이 부와 재산을 자체 목적으로 추구하여 나타나는 정체가 과두정(寡頭政 oligarchy)이다. 그들은 오로지 수전노 같은 절제의 덕만을 갖게 된다.

과두정의 자손들이 돈에 익숙해져 절제를 잃고 명예도 지혜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중우정치(衆愚政治) 또는 폭민정치(暴民政治)로 타락한 민주정(民主政 democracy)이 나타난다.

참주정(僭主政 tyranny)은 민주정에서 빈자계급이 자신들에 대한 부유층의 억압을 구실로 민주정체를 무너뜨리면서 나타난다. 그들이 뽑은 지도자는 처음에는 부자들을 억압하고 다음으로 국민을 억압하면서 결국 전체가 절대 독재자의 노예가 된다.

####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국가>의正義

#### 플라톤, '동굴의 비유' 통해 哲人정치 주장

#### 음악·체육 등 전인 교육... 지혜 체득 중시

한 우주 질서로서의 최고의 좋음(Good)을 학습한다.

#### 좋은 세계와 동굴의 비유

좋은(good)의 이데아인 최고의 좋음은 형상(form) 중의 형상, 이데아 중 이데아로 경험적 세계와 독립된 순수한 세계이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최고의 좋음은 신에 해당한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현실을 그림자의 세계로, 최고의 좋음은 태양으로 비유한 이야기다.

여기 동굴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죄수들이 있어 앞면에 비추고 있는 그림자만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의 뒤에는 사람과 동물과 여러 물건의 인형들이 움직

이해하게 된다. 쇠사슬에 묶였을 때 본 그림자는 복제물의 복제물(simulacra)이다.

여기서 동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상계이며 동굴 밖의 세계는 실제(이데아)의 세계이다. 또한 태양은 좋은의 궁극적 형상이며 지상의 모든 사물의 형상과 그들 간의 질서와 조화의 원인이다. 늘 변화하는 현상의 세계에서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부정확한 의견만이 있을 뿐이며 동굴 밖의 변하지 않는 순수한 존재의 세계만이 지식의 대상이 된다.

정의는 지혜, 용기, 절제 또는 그 이외의 다른 덕과 마찬가지로 현상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에 관한 지식은 현상의 세계에서는 구할 수 없고 동굴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현상계의 의견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습관이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뎠을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뎠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뎠(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배개등 자매품다양)